

지역 소식통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관련 군산해경 대규모 훈련

2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오는 27일과 내달 7일 양일 간 군산 앞바다에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훈련에는 3000톤급 경비함 등 총 6척의 경비함과 항공기가 동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어선에 오르려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사용한 위협과 저항하는 상황에 대해 고속단정 내에서 실전시뮬레이션이 처음으로 시도된다. 각 훈련일 이후에는 군산 앞바다 남쪽 약 6km 해상에서 공중합격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근에서 조업이나 이동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2일 2017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군산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역사회보장 활동 보고와 2017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군산시 지역사회보장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역사회 보장 영역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 서비스제공에서 교육,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으로 대폭 영역이 확대되어 이에 따라 수요자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조성이 절실하다는 뜻을 같이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서익산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서익산농협은 23일 서익산농협 본점 2층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서익산농협은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조합원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조합원 20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임철서 조합장은 "먼저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을 축하하며 자녀들을 기운다"라 고생하신 조합원들께도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며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항, 물동량 상승 '청신호'

팬오션, 신규 군산~청도 항로 컨테이너선 운항개시

수출입 기업체 물류비 연 160억원 절감 효과 기대

군산시가 전북도 및 해수청과 함께 군산항 화물유치단을 꾸리는 등 화물 유치에 적극 나서 물동량 상승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200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선사 및 물류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성과로 24일 팬오션(주) 소속의 컨테이너선 포스요코하마호가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에 입항해 전북도내 코일 생산업체의 원료 약 40TEUCITET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하역할 예정이며, 신규 군산~청도 항로의 첫 운항을 시작한다. 군산항에 입항하는 포스요코하마호는 20피트 컨테이너 702개를 선적할 수 있는 1만208톤의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군산과 중국 청도 부산, 광양 대산을 연결하는 항로에 투입되어 주 1회 매주 금요일 입항하게 된다. 신규 개설된 군산~청도 항로의 주요 화물은 유리, 금속 화학제품, 농식품 및 잡화 등으로 연간 6000TEU로, 지난 한해 컨테이너 터미널 물동량 대비 약 11%의 물동량을 추가로 유치할 것으로 예상돼 군산항 물동량 상승에 청신호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전북도내 수출입 기업체의 물류비가 연간 160억 원 절감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팬오션(주) 관계자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시장



환경이지만 군산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산~청도 항로가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한준수 부시장은 "팬오션(주)의 신규추진을 환영하고 군산으로의 취항을 결정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는 세계 각국의 선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컨테이너 마케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생생문화재 사업' 4년 연속 선정

3월~10월까지 지역문화재 생생한 역사체험장으로 활용 사업 추진

군산시가 문화재청의 2017년 생생(生生)문화재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역사의 아픔과 서민의 애환을 가득 담은 군산만의 지역문화재를 생생한 역사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관광 교육 자원으로 육성해 지역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시행했으며, 시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원도심 내 문화재를

활용한 2017년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의 특징은 (구)군산세관본관과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등 원도심에 위치한 6개 문화재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군산의 근대 역사 탐험 ▲공감배에 군산역사문화교육 ▲문화재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회

(군산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다) ▲청소년 문화제지킴이 활동 및 복도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근대역사를 찾아 떠나는 문화제(文化祭) 프로그램은 신홍동 일본식 가옥과 그 주변을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 개별 프로그램을 문화재 손수건 만들기, 기타 문화제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자리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국내복귀기업 전일니트 패션단지 분양계약

국내복귀기업 전일니트가 23일 시청에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전일니트는 지난 2월 1일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곧바로 20일 일터 만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단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일니트는 남산면 구령리 1524 일원에 총 분양면적 3,306㎡(분양대금 4억여원)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광역시 500여명의 공장을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총 15억여원을 투자하고, 10여명이 넘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섬유

원단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성국 대표는 "앞으로 익산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섬유 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김길곤 노사협력계장 원광대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익산시(시장 장한울)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파트너십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김길곤 노사협력계장(사진)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박사학위 논문의 주요내용은 익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리더십과 제도 및 규범요인을 강화 할 것 등의 4가지 주요내용으로 담아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김 계장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익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파트너십 형성요인의 관계를 미리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보건소 합라면 장점마을 암발생 따른 역학조사 추진

익산시 합라면 장점마을에서 2010년부터 마을주민 108명중 11명사망, 4명 암증세 등 중증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23일 익산시보건소 발표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유)금강농산 비료공장이 2000년대 초에 입주한 이후부터 2010년부터 암환자가 발생하여 11명사망, 4명암증세(위암3명, 대장암 1명) 감염이 거의 14%이상 감염으로 마을이 썩대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익산시보건소는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이등 암검진을 2017년 2월 이후부터 5대암을 검진을 시작한 것"이며 검진 항목 및 대상과 주기는 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남녀(2년),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1년),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2년), 간암 만40세

이상남녀 중 간암고위험군(6개월),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2년)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와 협의결과, 환경 오염도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환자역학조사도 추진하면서 암환자의 발생일시, 장소, 성별, 연령 및 증상 및 특장위험물질등에의 노출여부 노출 경로와 그 밖에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을 암관리법 제6조(역학조사), 암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조 등의 근거법령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익산시 보건소는 "국가 암검진 사업을 장점마을에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의회, 민생 챙기기 의정활동 본격 돌입

군산시의회가 2017년 첫 번째 의사일정인 제200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집행부에서 상정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 안건 중 4건의 의

원발의 조례안으로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심사된다. 또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featuring a child and text: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Includes logos for DreamHub GUNSAN and GUNSAN CITY.